

부모 경쟁력, 자녀 성적 좌지우지... 고학년일수록 격차 뚜렷

교육계, 학력격차 해소방안 토론회
 “가구소득 600만원 가정의 학생 200만원 가정비 학업성취 월등”
 “양극화지수 10년전 보다 심해져 사교육 격차해소 위한 대책필요”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초등학교에서 입학을 앞둔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력과 교육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적과 연관돼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부모 경제력에 의해 직접 좌우되

는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EBS 방송 활용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기초연구’를 보면 가구소득 600만원 가정의 학생의 학업성취가 200만원 가정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으며, 초·중·고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뚜렷해진다. 일부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태규 의원은 사교육 참여율 증가와 함께,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불평등이 교육 자본으로 이동돼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보다는 유발 요인들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교 서열화는 사교육 전쟁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 정부는 특목·자사고 존치를 시사해 사교육 경감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구 소장은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등 학벌에 따른 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다각도의 불평등 해소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등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의 실효성 높일 수 있는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교육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지역 간 격차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는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 학생의 51.8%가 나와 지역 쏠림을 방증한다.

다만 과한 규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존재해야 하고, 교육 내에서도 시장 기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 죽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제대로된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 그 안에서 공·사를 잘 구분해 나가야 한다는 평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학교 석면검사 사진 중복사용... 업체 제재

서울시교육청, 17개곳 중복사용 확인
 용역대금 회수,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

서울시 소재 다수 학교와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업체들이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17개의 학교에서 사진을 중복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의 중복 사용으로 발생한 계

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용역대금 등의 회수를, 해당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각각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주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돼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즉시 시행했다.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은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분석사진(중형비 확인) ▲원소포크 그래프(검출되는 원소 확인) ▲성분분석표(석면 종류 확인)를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잔재물 결과보고서의 검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분석 사진 전수조사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전문가의 자문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마련되는 재발방지대책은 석면 잔재물 조사의 신뢰도 향상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송실대와 한국기독교실업인회가 기독교 정신을 함양한 인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송실대

송실대, 기독교 정신 인재양성에 앞장

한국기독교실업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송실대학교가 한국기독교실업인회와 기독교 정신을 함양한 인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학협력 창업 및 일자리 선교를 바탕으로 기독교 정신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16일 진행됐다.

본 협약을 통해 송실대와 한국기독교실업인회는 ▲소그룹 체플 운영을 위한 그룹리더 모집 및 교육 ▲현장 중심 영

성 기반 기업가 정신 함양 ▲CBMC 회원사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멘토단 운영, 인턴십, 업무 경험, 현장 실습 및 채용 기회 제공 ▲글로벌 CBMC 연계를 통한 ODA 사업 추진 ▲일터 사역을 위한 K-startup 발굴 ▲CBMC 회원사와 송실대 간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 등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및 기독교 정신 기반 창업을 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이은용 경희사이버대교수 ‘중기부 장관상’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기여 공로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은용(사진) 호텔경영학과 교수가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은용 교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특히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따른 지역 상생을 위해 스마트상점 사업을 활성화하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교수는 “최근 어려운 경기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중소형 호텔, 숙박업소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편을 맞은 호텔경영학과는 호텔 및 숙박산업의 전문 경영자 양성을 위해 제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CRM & CS Leader, SM AT 등 자격증 관련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고, 리더십, 인사노무관리,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교과목도 개설해 실무에 집중·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산업 현장과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호텔경영학과는 오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한다. 입학 관련 자세한 문의는 입학지원 홈페이지(go.khcu.ac.kr)나 대표전화(02-959-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사회복지학회 회장 취임

홍경준(사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8일 한국 사회복지학회 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사회복지학전공)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연구위원, 사회보장실무위원회 위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하은 기자



청소년·시민 연세 인문학캠프 30일 개회

연세대-서대문구청 공동주최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연세 인문학 캠프가 오는 30일, 2월 1일과 3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위당관 B09호에서 열린다.

이번 사업은 연세대 문과대학 인문예술진흥사업단과 서대문구청이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연세대 심리학과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명사들의 인문학 특강과 캠퍼스 투어 및 운동주 기념관 견학, 에세이 공모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1일차에는 조강석 연세대 문과대학 기획부학장의 환영사와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나희덕 시인의 강연(‘시적 감수성과 예술적 상상력’)과 연세대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의 강연(‘효율적인 칭찬과 꾸중’)이 예정돼 있다. /신하은 기자